

2018년 투쟁방침 수립 위한 지부 설문조사 결과

* 1/25일 ~ 2/6일, 824명 참여

불안한 미래에 걱정

이번 지부 설문조사에는 총 824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.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장의 **경영상태가 향후 불안하거나(23%) 나빠질 것(43.9%)**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. 현재 **매출 저하나 일거리 감소(40.5%)와 기술 및 설비투자 저하(41.%)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** 나타났다.

지역생활 환경 문제

조합원의 68.2%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**교통체증(47.1%)**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사업장과 거주지에서 모두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했다. 교육환경은 보통(60.3%) 수준의 만족감을 보였으나 **교통사고 위험(43.7%)과 학교시설 낙후(25.4%)**는 해결해야할 점으로 꼽았다. 거주지 생활환경에 대해 기타의견으로 문화, 복지시설 부족을 이야기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었다.

노동법 개악이 노조활동에 영향

최근 노동법 개악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67.3%의 조합원은 **노동법이 개악되면 단체협약이 후퇴되어 노동조건이 하락하거나(30.7%), 노조활동하기 어려워질 것(36.6%)**으로 예상했다. 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**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에 대해서는 73.6%의 조합원이 공감**한다는 뜻을 밝혔다. 또 조합원들은 타임오프, 복수노조 등 노동법 개악과 징계, 해고, 손배가압류 등 자본의 노동탄압으로 노조활동이 다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.

지부 내 주요 사업장들이 노조파괴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은 자본이 회사 편향적인 노동조합을 세워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려는 목적(37.9%)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. 그러나 노조파괴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에 대해서는 **대응하고자 노력하나 부족하다(53.0%)**라고 답해 노조의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. 지부 차원에서는 투쟁사업

장에 대한 재정지원(38.2%)과 지부 총파업 등의 지원(25.7%)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

진보정당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

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적폐청산에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조합원들은 대체로 보통(44.0%)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. 현재의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**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5.2%가 필요**하다고 답했다. 그러나 그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따끔한 쓴소리를 기타 의견으로 남겨준 조합원들도 있었다. 진보정당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하기 위해 **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령이나 정책의 차이로 힘들 것(35.1%)**으로 보는 조합원들이 많았다.

금속노조 자랑스럽지만 더 노력 필요

이번 설문에 응한 조합원 중 58.3%는 **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** 생각하고 있었다. 또 지부의 투쟁이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(48.1%) 생각한다. 지부 투쟁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**지부 투쟁을 다 함께 결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(42.4%)**며 모든 사업장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.

2018년 투쟁방침 마련에 반영할 것

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투쟁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. 투쟁방침을 확정할 지부 임시대대(3/26일) 전까지 노동의제발굴위원회 회의(사무장 참가)와 운영위원회 회의(지회장 참가)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다. 예년보다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.